

북미지역 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 논의와 비판적 독해

이 경 래*

1. 머리말
2. 북미지역 공동체 아카이브의 역사적 맥락
 - 1) 미국의 공동체 아카이브 전통과 '다큐멘테이션 전략'
 - 2) 캐나다의 '토탈 아카이브' 전통과 '아카이브 시스템'
3. 북미지역 공동체 아카이브의 특성
 - 1) 추진 주체로서 주류 문화기관
 - 2) 수집기관 중심의 정리 및 기술
 - 3) 평가주체로서 아키비스트의 역할 강조
4. 북미지역 공동체 아카이브 거버넌스 논의
 - 1) 공적 기록에 대한 초기 거버넌스 논의 : '거시평가론'
 - 2) 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 논의 본격화 : '참여 아카이브'
 - 3) 참여 아카이브의 개념적 프레임워크 : 공동체 아웃리치 전략
5. 북미지역 공동체 아카이브 거버넌스 논의의 한국적 함의

* 전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책임연구원, 국제공인아키비스트(CA). 주요 논저 : "The Role of Buddhist Monks in the Development of Archives in the Korean Middle Ages" *American Archivist* (spring-summer) 2010; 「영국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의 전개와 실천적 함의(공저)」, 『기록학연구』 제37호, 2013.

▪투고일 : 2013년 9월 23일 ▪최초심사일 : 2013년 9월 28일 ▪게재확정일 : 2013년 10월 25일.

[국문초록]

이 글은 미국과 캐나다의 북미 국가들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참여 아카이브(participatory archives)’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 논의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국내 공동체 아카이브의 발전에 긍정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글은 북미에서의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주요 특징들, 즉 추진 주체로서 주류 문화기관, 수집기관 중심의 아카이브 정리 및 기술, 그리고, 평가 주체로서 아키비스트의 역할론을 제시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관 주도형 하향식 모델을 지배적 아카이브 시스템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한다. 이 때문에 하향식 모델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관의 협치에 기반하여 아카이빙 전 과정에 공동체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북미 국가들이 최근 시도하고 있는 참여 아카이브의 제안을 살핀다. 결론에서는, 북미 거버넌스 논의의 비판적 독해를 통해 한국적 함의를 살핀다. 즉 국가기록원을 비롯해 다양한 주류 문화기관들이 추진 주체가 되어 구축해 왔던 대부분의 공동체 아카이브가 여전히 관주도의 ‘공동체에 관한(about the community)’ 기록에 머물러 있는 우리 상황에서, 북미 참여 아카이브에서 보여지는 타자화된 공동체 기억을 복원하려는 논의는 국내 공동체 아카이브가 재활력을 얻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판단한다.

주제어 : 공동체, 공동체 아카이브, 거버넌스, 민관 협치, 참여 아카이브, 북미지역 공동체 아카이브, 하향식 공동체 아카이브, 다큐멘테이션 전략, 토탈 아카이브, 공동체 은틀로지, 공동체 아웃리치 전략

1. 머리말

미국과 캐나다의 북미지역 공동체 아카이브는 오래 전부터 공공 아카이브를 포함해 역사협회나 대학, 도서관 등 다양한 문화기관이 중심이 되어 민간 영역의 기록물로 수집, 관리해 왔다. 북미의 공동체 아카이브는 주류 문화기관이 중심이 되어 사회 전반에 대한 다큐멘테이션의 일환으로 공동체 아카이브를 수집 및 관리하는 주체적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전통에서 북미의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동체의 정체성보다는 공적 수집기관의 수집 정책에 근거한 효율적 정리와 기술 방식을 강조했다. 기록물 평가에 있어서도 공동체 구성원보다는 수집기관의 전문 아키비스트에 의한 판단이 중요하고, 평가 기준 또한 기록생산자인 공동체보다는 학술연구자 등 제 3자에 의한 활용 가치에 우위를 두고 있다.

북미지역 공동체 아카이브는 이렇듯 ‘하향식(top-down)’ 공동체 아카이브의 주요한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하향식 모델의 보완책의 일환으로 북미 공동체 아카이브의 관주도형 공동체기록의 수집 및 관리는 최근에 새로운 발전 모델을 수용하고 있다. 즉 공동체 관련 기록물을 수집해 온 주류 문화기관의 체계는 그대로 살리면서도, 기록물 평가 및 정리와 기술에 있어서 기록 출처이자 주체로서 공동체 참여를 적극 독려하는 ‘참여 아카이브(participatory archives)’, 즉 새로운 민·관 협치의 거버넌스(governance) 모델¹⁾이 그것이다. 이것은 북미 공동체 아카이브

1) 이 글에서 ‘거버넌스’ 혹은 ‘협치’ 개념은 주류 문화기관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한 민간 공동체 아카이브와의 민·관 협업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협치는 기존의 관 중심의 구도에서 민간 공동체의 목소리를 협치의 테이블로 끌어오는 긍정적 효과는 있으나, 여전히 논의의 헤게모니를 주류 기관의 필터를 통해 확장하려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한편, 북미의 협치 개념과 달리 중요한 관·민 네트워크의 형식으로 영국식 ‘파트너십(partnership)’ 개념은, 공동체가 주체가 되고 주류 기관이 조력자가 되면서 일방에 의한 헤게모니적 구성

가 가지는 전통적인 하향식 공동체 아카이브의 기관 중심적이고 관주도적인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 기제로서 제안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북미 기록학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참여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의 성격 논의를 깊게 하면서, 국내 아카이브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공동체 아카이브’를 향후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함의를 얻고자 한다.²⁾ 우리의 경우, 국가 기록원을 비롯해 다양한 주류 문화기관이 수집, 구축해 온 대부분의 공동체 아카이브는 여전히 관주도의 ‘공동체에 관한(about the community)’ 기록에 머물러 있다.³⁾ 북미의 주류 문화기관과 공동체간 협치에 기반한 참여 아카이브는, 주류 관중심의 하향식 아카이브의 전통에서 크게 나아가지 못한 우리에게 사뭇 교훈적이다. 무엇보다 이 글은 북미 지역의 참여 아카이브 모델이 구사하는 공동체 ‘아웃리치(outreach)’ 전략을 집

이나 흡수가 아닌 상호 호혜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영국의 아카이브 모델에 관해서는, 이경래·이광석, 「영국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의 전개와 실천적 함의」, 『기록학연구』 제37호, 2013, 3-39쪽 참고).

- 2) 최근 국내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주관, 「공동체의 기억을 담는 아카이브를 지향하며」, 『기록학연구』, 제33호, 2012; 김화경, 「마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수집 전략」,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2권 제2호, 2012; 손동유·이경준,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활성화 방안」, 『기록학연구』, 제35호, 2013; 설문원,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제32호, 2012; 윤은하,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기록학연구』, 제33호, 2012; 이경래·이광석, 「영국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의 전개와 실천적 함의」, 『기록학연구』, 제37호, 2013; 이영남, 「공동체아카이브, 몇 가지 단상」, 『기록학연구』, 제31호, 2012; 조은성, 「기록학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기술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제37호, 2013.
- 3) 최근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하며 주목받고 있는 성미산마을, 풀무공동체 등 공동체운동의 경향과 이들의 주류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구축가능한 마을 아카이브 모델은, 본 논문에서 일단 논외로 한다. 이들의 자율적 공동체운동의 흐름은 또 다른 아카이브 접근법(주로 영국의 파트너십 모델에서 그 함의를 찾고자 한다)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향후 구체적 분석을 통해 제시할 생각이다.

중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주류 문화기관들이 공동체의 가치를 최대한 반영하는 협치의 공동체 아카이브를 응용, 구축하는 데 효과적인 현실 기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북미지역 공동체 아카이브의 발전 국면을 미국과 캐나다의 다큐멘테이션 전략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분석한다. 이어서, 북미지역 공동체 아카이브 전통에서 이의 고유한 하향식 공동체 아카이브의 특성들을 도출해낼 것이다. 다음에는, 북미에서의 민·관 거버넌스 논의에 집중한다. 즉 기록관리 분야에서 공공 기록을 대상으로 한 초기 거버넌스의 논의와 함께 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 모델인 ‘참여 아카이브’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북미지역의 ‘참여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모델이 우리 식 관주도형 공동체 아카이브에 던지는 함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2. 북미지역 공동체 아카이브의 역사적 맥락

1) 미국의 공동체 아카이브 전통과 ‘다큐멘테이션 전략’

미국에서 공동체 아카이브를 포함한 다양한 민간 기록의 수집 전통은 1791년에 설립된 매사추세츠 역사협회(Massachusetts Historical Society)에서 시작된다. 영국의 경우에는 정부의 행정 기록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공공문서보관소(Public Records Office)에서 아카이브의 전통이 시작된 반면, 미국에서는 정부의 외곽에서 학문적 필요에 의해 민간 기록을 수집하는 아카이브의 전통이 먼저 시작되었다. 미국 최초의 역사학자 모임이었던 매사추세츠 역사협회가 미국 역사에 대한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 최초의 아카이브였던 셈이다. 매사추세츠 역사협회를 시작으로, 미국은 지역 기반의 다양한 역사협회, 도서관, 그리고 대학 등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민간 기록물들을 수집해 왔다.

미국의 공공 아카이브는 또한 정부 기록과 기관 기록의 수집 및 관리에 그 중점을 두었다. 예외는 있었다. 1901년에 설립된 미국 최초의 주립문서보관소(state archive)인 ‘앨라배마 아카이브와 역사부(Alabama Department of Archives and History)’ 등 초기의 공공 아카이브들이 지역의 행정 기록뿐만 아니라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민간 기록물을 수집했다. 허나 20세기 중반경에 접어들면 미국의 공공 아카이브는 수집 범위를 공적 기록으로 한정하게 된다. 당시 미 일리노이 주(Illinois State) 소속 최초 아키비스트(State Archivist) 마가렛 노턴(Margaret Norton)은 공공 아카이브의 전문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도서관이나 역사협회의 수집 정책과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크게 그녀의 영향력을 발휘했다. 점점 미국의 공공 아카이브는 정부 기록의 수집 및 관리로 그 범위를 제한해 나갔다. 특히 공적 기록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는 경향은 이후 테오도르 쉘렌버그(Theodore R. Schellenberg)의 영향으로 더욱 강화되어 미국 공공 아카이브의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셸렌버그는 국가 기록원(National Archives)에 근무한 경험에 근거하여 공공 아카이브의 정부 중심적이고 관조적 주도적인 전통을 확립시켜 나갔다. 공공 아카이브의 ‘기관적 성격(institutional nature)’을 강조한 그는 민간 영역의 기록물 중 단지 정계나 재계에 중요한 인물에 대한 기록만이 공공 아카이브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⁴⁾ 그의 영향을 받은 공공 아카이브에 근무하는 아키비스트들은 개인과 집단의 기록을 기껏해야 통계자료 정도로 취급했으며, 종종 개인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록의 원천으로 취급되는 케이스 파일의 경우에 기록

4) Dominique Daniel, “Documenting the Immigrant and Ethnic Experience in American Archives”, *American Archivist* Vol. 73 Spring/Summer, 2010, p.84.

물의 양에 비해 증거 가치가 낮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 그래서, 기관 기록 및 공공 기록은 공공 아카이브들에서 수집하여 관리한 반면, 개인 기록을 포함한 다양한 민간 기록물에 대한 수집은 역사협회나 지역의 역사센터 또는 대학, 도서관 등 주류 문화기관에서 ‘스페셜 콜렉션(special collection)’이라는 명칭으로 수집, 관리되면서 이원화했다.

미국은 이렇듯 전통적으로 공공 아카이브를 포함한 주류 문화기관에서 민간 기록물을 수집해 왔다. 단지 공공 아카이브의 경우에, 적어도 20세기 초반까지는 영국과 달리 정부 기록뿐만 아니라 지역의 민간 기록물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수집 정책을 표방하였지만, 이후에는 그 범위를 축소하여 일부 저명한 인물에 대한 기록들을 예외로 하면 대부분 정부 기관의 기록만을 중점적으로 수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주로 공공 기록에 강조점을 두면서, 다양한 주제에 기반한 컬렉션과 사회 소수자 및 공동체 관련 기록들은 역사협회, 대학, 도서관 등 주류 문화기관에 분산되어 수집, 관리되었다.

공공 기록 중심의 경향은, 사실상 다양한 문화기관에서 각 기관의 수집정책의 범위 내에서 산발적으로 수집, 관리되어 온 민간 기록물을 주변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1960년대에 미국에서 ‘아래로부터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는 사회사의 발전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당시 사회사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은 사회에서 보통 사람과 다양한 사회적 공동체에 대한 기록을 갈구했지만 소외되거나 익명의 개인들과 집단,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기록물을 찾기 위해 방문한 공공 아카이브에서 관련 기록물의 부재와 그 속에 잔재한 역사적 편견을 목격했다. 뿐만 아니라 민간 기록물을 수집해 온 지역 기반의 역사협회나 대학, 지역 소재의 소규모 수집기관의 경우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는데다가 수집에 있어서도 기관의 수집 정책에 부합하는 자료들만을 주로 수집하고 있어 아래로부터의 역사라는 새로운 사회사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

는 사료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미국사회에서 1960년대 이후 인권운동과 비(非)백인 소수자들을 중심으로 한 인종운동의 출현은, 흑인과 멕시코계 미국인(Chicano) 등 그동안 소외되었던 대표적인 인종 공동체의 아카이브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역사가 하워드 진(Howard Zinn)의 아키비스트에 대한 경고는 1960년대 소외된 대중의 사회적 움직임과 아래로부터의 사회사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진은 아카이브가 오랫동안 미국 사회의 많은 부분들을 소홀히 해왔고 부유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집중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보통사람들의 삶, 욕망, 그리고 요구 전반에 대한 새로운 기록화를 주장했다. 그는 아키비스트가 그동안 해왔던 역할, 즉 기록의 보관인(custodian of records)으로서 수동적인 역할을 비판하면서, 이제는 ‘실천적 아키비스트(activist archivist)’로서 새로운 기록을 능동적으로 발굴해서 수집할 것을 강조했다.⁵⁾

미국 기록공동체 내부에서도 당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미국 아키비스트 협회(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는 소외된 영역에 대한 광범위한 기록화를 보장할 것을 기록공동체 전반에 촉구했다. 기록학자인 제럴드 햄(Gerald Ham)은 진의 비판에 동의하면서, 공공 아카이브를 포함한 아카이브 전반의 평가 및 선별에 있어서 편향을 날카롭게 비판하였다.⁶⁾ 사회적 요구에 대한 기록공동체 내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아키비스트들 사이에 역할과 책임, 특히 평가(appraisal)와 수집 정책(collection development policy)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고,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새로운 기록화 방법론으로써 ‘다큐멘테이션’ 전략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1980년대에 헬렌 사무엘스(Helen Samuels)에 의해 제안된 다큐멘테이

5) Howard Zinn, "Secrecy, Archives and Public Interest", *The Zinn Reader: Writings on Disobedience and Democracy*, Seven Stories: New York, 1997, p.524.

6) F. Gerald Ham, "The Archival Edge", *American Archivist* Vol. 38, No. 1, 1975, p.6.

선 전략은 미국의 전통인 웰렌버그의 기관기록 중심의 평가론을 반박하고 있다. 즉 그는 공공 아카이브 등 주류 아카이브가 기존의 수집 범위인 행정 및 기관 기록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그 지방사를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민간 기록물을 수집하는 책임의 주체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지방의 기록관리 기관들이 공공 기록을 수동적으로 이관 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의 민간 기록물을 수집하고 이를 서비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데 있다.⁷⁾ 다큐멘테이션 전략은 자연스레 공공 아카이브 및 문화기관을 포함한 주류 아카이브가 다양한 지역 공동체들의 아카이브를 수집하는 능동적 주체여야 함을, 그리고 이들 주류 아카이브 주도의 공동체 아카이브 구축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다큐멘테이션 전략은, 미국에서 그동안 소외되어온 다양한 공동체의 기록화를 위해 복수 수집기관의 협력적 수집, 결락된 범주와 대상을 위한 기록 생산 방법론, 기록 생산자와 활동가를 포함하는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기관의 풀뿌리 아웃리치 전략을 위한 개념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했다.⁸⁾ 아카이브 평가 국면에서 보자면, 기록 자체보다는 기록이 생산된 사회적 맥락을 중심에 놓도록 하는 다큐멘테이션 전략은 인종 공동체를 포함한 다양한 공동체 아카이빙에 유용하였다. 또한 구술 등 방법론의 도입은 주류 기억이 아닌 ‘대항 기억’을 기록화하는 새로운 기법을 제공했다.

다큐멘테이션 전략이 오늘날 기록공동체에서 여전히 논쟁이 많고 실행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당대 미국 사회 전반의 기록화를 표방하면서 소외된 공동체 아카이브를 역사의 무대에 복원시키기 위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

7) 설문원, 「지역 기록화를 위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적용」, 『기록학연구』 제26호, 2010, 104쪽.

8) 위의 글, 116쪽.

다. 적극적으로 기록 생산에 개입하는 아키비스트의 능동적 역할을 강조하는 다큐멘테이션 전략은, 특히 1960년대 미국 인권운동의 등장과 함께 성장했던 초창기 이민과 인종 공동체 아카이브 정착에 크게 기여하였다.⁹⁾

2) 캐나다의 ‘토탈 아카이브’ 전통과 ‘아카이브 시스템(archival system)’

‘토탈 아카이브(total archives)’는 캐나다에서 발전한 다큐멘테이션 전략¹⁰⁾으로, 국가의 정치사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사를 통합적으로 기록화하려는 시도라 볼 수 있다. 이의 본격적인 등장은 1970년대지만, 토탈 아카이브의 개념은 캐나다에서 초창기 국립기록청(Dominion Archives)의 진화와 더불어 시작된 전통으로, 백오십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 한마디로 ‘토탈 아카이브’는, 공적 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아카이브 기관들(즉 국립기록청, 주립 아카이브, 시립 아카이브)이 종이 기록, 오디오·비디오 기록, 지도, 건축 설계도면, 그리고 마이크로필름과 같은 광범위한 매체 속에 존재하는 공공 기록뿐만 아니라 민간 기록을 대중의 이용을 위해 획득하고 보존하고 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정의한 것이다.¹¹⁾

캐나다는 독립 국가체로서 그 첫발을 내디딜 당시에 식민주의자와는 차별화된 국민 스스로의 역사적 내러티브를 정립할 필요성을 강하게

9) Dominique Daniel, “Documenting the Immigrant and Ethnic Experience in American Archives, p.90.

10) 여기서 다큐멘테이션 전략은 미국에서 1984년에 헬렌 사무엘스에 의해 명명된 고유명사적 의미가 아니라, 평가방법론 중 하나로 기록이 생산된 사회적 맥락을 강조하여 사회전반의 기록화를 표방하는 방법론을 지칭한다.

11) Laura Millar, “Discharging our Debt: The Evolution of the Total Archives Concept in English Canada”, *Archivaria* Vol. 46, Fall, 1998, p.104.

느꼈다. 그래서, 공공 아카이브가 이미 공적 기록은 물론이고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민간 기록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토탈 아카이브의 전통을 수립하게 된다. 토탈 아카이브의 전통은 앞서 본 미국이 공공 기록과 민간 기록을 분리해서 수집, 관리하는 관례와 상당히 다른 아카이브 전통에 해당한다.¹²⁾ 더불어 물적인 조건에서 보더라도 캐나다 건국 초기에 국립도서관이나 박물관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공공 아카이브가 자연스레 공적 기록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민간 기록까지 수집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됐다.

캐나다의 초대 국립기록청장(Dominion Archivist) 더글라스 브라이머(Douglas Brymner)는 하나의 보관소(single repository)에서 모든 기록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one-stop-shop)고 역설했다. 브라이머는, 캐나다의 광활한 영토로 인해 기록물이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으면 캐나다의 정치적 사회적 과거의 내러티브에 대한 국민의 접근이 제한된다고 보고, 공공 기록과 민간 기록을 통합해 관리, 보존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봤다.¹³⁾ 이러한 토탈 아카이브 전통은 2대 국립기록청장인 아서 조지 도티(Arthur George Doughty)에게로 이어진다. 도티 또한 국립기록청이 정부기록뿐만 아니라 민간기록들을 모든 매체에 걸쳐 수집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캐나다 사회의 모든 측면들을 기록하는 역사적 기록물의 풍부한 컬렉션 수집을 기관의 목표로 천명하였다.¹⁴⁾

토탈 아카이브의 전통은 20세기에 걸쳐 캐나다의 공공 아카이브에 지속적으로 반영되었다. 1949년에 ‘예술, 문서, 과학의 국가발전을 위한 왕립위원회(Royal Commission on National Development in the Arts, Letters and Sciences)’는 최종보고서에서 캐나다 사회의 모든 것을 기록하고 모

12) 영국과 유럽 역시 현용기록은 공공문서보관소에, 민간 기록은 박물관과 도서관에서 분리하여 수집 관리하는 전통에 기반하고 있다.

13) Laura Millar, "Discharging our Debt", pp.106-111.

14) Ibid.

든 매체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기록 수집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¹⁵⁾ 1972년에 마침내 토탈 아카이브를 공식적인 기조로 명명한 제5대 국립기록청장인 윌프레드 스미스(Wilfred Smith)는, 캐나다 국립기록청의 100주년을 기념하는 저서에서 캐나다 국립기록청의 광범위한 토탈 기록화 책임을 재차 강조하였다.¹⁶⁾ 스미스는 “공공 아카이브가 역사적 가치를 가지는 정부 기록뿐만 아니라 캐나다인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종류의 역사적 자료와 모든 원천으로부터의 컬렉션을 수집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¹⁷⁾

캐나다의 토탈 아카이브 전통은, 이렇듯 아카이브의 수집 및 관리에 있어 공공 아카이브의 중심적 역할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민간 영역의 기록획득 및 관리에 있어서도 공공 아카이브가 책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였다. 토탈 아카이브를 한마디로 모든 원천으로부터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기록으로 정의하면서 공공 아카이브를 이러한 행위의 실행 주체로 간주했다. 토탈 아카이브의 강한 전통에 의존해, 캐나다는 국립기록청을 비롯하여 주립, 시립 아카이브 등이 공공 아카이브의 공적 기록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의 다양한 주제 기반의 컬렉션과 공동체의 기록들을 광범위하게 수집, 관리해 나갔다.

20세기 중반을 거치면서 상황은 달라진다. 토탈 아카이브의 오랜 전통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정부는 자국 사회와 행정 체제의 변화, 그리고 행정 문서의 대량 생산으로 인해 토탈 아카이브의 현실적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무엇보다도 1970년대에 접어들면 캐나다 사회는 인종적으로 더욱 다양해지면서 단일의 통일된 국가적 기원의 강조점에서 지역 또는 인종적 정체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사

15) Ibid., p.114.

16) W. I. Smith, *Introduction*, *Archives: Mirror of Canada Past*, Toronto, 1972, pp.9-10; Laura Millar, Ibid., p.117.

17) Laura Millar, Ibid.

회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실제로 캐나다 정부가 1971년에 다문화주의 정책을 채택했고, 이미 중앙 집권적인 경제적, 사회적 프로그램에 대해 수도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주(州)들이 불만을 토로하던 분위기가 컸다.

기록 공동체 내부에서도 토탈 아카이브에 대한 비판이 본격적으로 일었다. 사실상 토탈 아카이브 체제 아래서는 국립기록청이라는 중추적 ‘문지기(gatekeeper)’의 손에 공공 기록과 민간 기록의 관리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부여했다. 사실상 이의 전제는 국립기록청이 사회의 모든 측면을 다큐멘테이션하는 기록을 획득할 수 있고 모든 공동체가 자신들의 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공공 아카이브를 신뢰한다는 조건에서다. 기록의 평가에 있어서도 기록 생산자보다는 전문 아키비스트의 평가를 개인적 편견과 의견에 의해 타협되지 않는 객관적인 과정으로 전제하는 토탈 아카이브 개념은, 정부 주도의 다큐멘테이션 전략에 대한 지나친 낙관주의를 반영했다. 토탈 아카이브가 비록 차별없는 전면적 기록화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출발했지만 이것은 소수자 그룹, 공동체, 소외계층, 또는 사회적 낙오자들의 기록을 수집하기 위한 현실적인 전략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커져갔다.¹⁸⁾

지역차원에서의 분권화된 통제의 필요성은 특히 문화적 영역에서 강조되었다. 예를 들면, 캐나다 정부는 1972년 ‘분권화와 민주화’를 모토로 하는 국가 차원의 박물관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캐나다 박물관들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자신들의 문화적 자원들을 지역 또는 지방의 기관들에게 배분한다는 취지였다. 기록관리의 영역도 사회 전반의 재구조화와 분권화에 있어서 예외는 아니었다. 지역적 차원에서 기록의 관리와 분권화 요구가 증가하면서, 1950년대에 60개 정도 존재하

18) 한편, 당시 국립기록청에 근무하던 테리 쿡(Terry Cook)은 토탈 아카이브의 원칙이 갖는 매체의 형태에 대한 강조가 아카이브의 출처주의를 위협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기록을 기능 중심으로 분류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Terry Cook, “The Tyranny of the Medium”, *Archivaria* Vol. 9, Winter, 1979-1980, pp.141-149.

던 기록 보존소가 1970년대에는 200개 정도로 증가했고 점차 더 많은 지역들이 지역 기반의 기록 보관소를 구축해 나갔다.¹⁹⁾

캐나다 사회 전체를 기록한다는 토탈 아카이브 개념은 이전의 국립기록청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관리 방식을 탈피하여, 이제는 지역적으로 분산되고 분권화된 수많은 캐나다 아카이브들을 함께 연결하는 네트워킹 개념을 통해 현실화하고자 했다. 1990년대에 등장한 캐나다 ‘아카이브 시스템(archival system)’은 토탈 아카이브 개념의 기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분권화된 아카이브 간의 네트워크 구성이라는 방법론적 전환을 꾀한 것이다. 분산적으로 관리되는 공공 아카이브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아카이브들을 아카이브 시스템이라는 네트워킹을 통해 통합적으로 서비스한다는 취지이다.

캐나다의 아카이브 시스템을 통한 토탈 아카이브의 구현 방식은 마침내 ‘캐나다 아카이브위원회(Canadian Council of Archives)’를 통해 본격화된다. 2001년에 아카이브위원회는 캐나다 전역에 걸쳐 800개가 넘는 아카이브에 대한 통합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카이브 정보 네트워크, ‘아카이브 캐나다(Archives Canada)’를 구축했다. 아카이브위원회는 이를 통해 캐나다 전역에 걸쳐 종이, 사진, 지도, 오디오·비디오 기록물 등 다양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는 수백 개의 아카이브들이 정기적으로 기록물들을 기술(description)하고, 생산된 기술을 13개 주별로 구축된 지역 차원의 통합 아카이브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 포털인 아카이브 캐나다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13개 주별 네트워크에는 주 소재의 공공 아카이브, 문화기관 등 주류 아카이브뿐만 아니라 그 외 다양한 공동체 아카이브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아카이브정보네트워크(The British Columbia Archival Information Network)인 ‘메모리 브리티

19) Kent M. Haworth, “Local Archives: Responsibilities and Challenges for Archivists”, *Archivaria* Vol. 3 Winter, 1976-77, p.31.

시콜럼비아(MemoryBC)'에는 공공 아카이브를 포함해 박물관, 역사협회, 공동체 아카이브 등 200여개의 개별 아카이브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 아카이브 개발프로그램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운용된다.²⁰⁾ 또한 마니토바 주의 아카이브 정보 네트워크(Manitoba Archival Information Network)는 약 40개 정도의 아카이브들이 참여하여 지역 아카이브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니토바 지역의 사람과 기관의 유산을 보존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들 역시 국가 아카이브 개발 프로그램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운용되고 있다.²¹⁾

종합해보면, 캐나다에서 공동체 아카이브는 토탈 아카이브의 전통으로 20세기 중반까지 주로 중앙집권적인 관리 체제 속에서 공공 아카이브에 의해 수집, 관리되었다. 하지만, 이후에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변화와 방대한 아카이브 자원의 중앙 관리의 애로, 그리고 공공 아카이브에 대한 지나친 낙관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서, 공동체 아카이브는 각 지역별 주립 및 시립 아카이브나 그 외 아카이브들에서 분산되어 수집, 관리되었다. 1990년대 등장한 캐나다 아카이브시스템은, 분권화된 여러 아카이브들의 디지털 네트워크를 구축해 토탈 아카이브의 전통을 제대로 구현하는 물질적 조건을 마련했다. 결국 이와 같은 토탈 아카이브의 디지털 네트워크 구현은 '아카이브 캐나다'로 완성되고, 이는 국가적 차원의 아카이브 게이트웨이 구축을 통한 공동체 아카이브 등 모든 아카이브들의 통합적 관리와 서비스로 나타났다.

20) MemoryBC: The British Columbia Archival Information Network, [cited 2013. 9. 16], <<http://www.memorybc.ca/about>>.

21) Manitoba Archival Information Network, [cited 2013. 9. 16], <<http://mbarchives.ca/about>>

3. 북미지역 공동체 아카이브의 특성

1) 추진 주체로서 주류 문화기관

북미에서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공 아카이브를 포함한 주류 문화기관들이 사회 전체의 기록화를 표방하는 다큐멘테이션 전략의 일환으로 공동체 관련 기록들을 수집해 왔다. 이는 영국에서 독립 공동체들이 내재적 발전의 결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제이자 풀뿌리 운동의 일환으로서 공동체 아카이브를 스스로 구축하기 시작한 것과는 사뭇 다르다.

캐나다는 미국보다도 더욱 강한 주류 문화기관 통합적 모델에 기초한다. 앞서 논의에서 본 바처럼, 캐나다의 공동체 아카이브는 ‘토탈 아카이브’란 강한 역사적 전통으로 말미암아 공공 아카이브를 포함한 주류 아카이브의 주도권 아래 유지되었다.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민간 영역이 주체가 된 공동체 아카이브가 설립되긴 했지만, 공동체 아카이브로 지칭되는 대부분은 국립기록청을 비롯해 각 지역 단위의 주립 및 시립 아카이브에 의해 수집, 관리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에 등장한 캐나다 ‘아카이브 시스템’ 체제는 토탈 아카이브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한다. 즉 국가의 지원을 등에 업은 13개 주정부의 주도하에 지역 차원에서 주립, 시립, 마을 단위의 분산 아카이브 수립을 도모하고 다양한 지역 기반의 공동체 아카이브들을 연결함으로써 그 통합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 속에서 관리 및 통제 주체는 지방 행정기관인 시나 마을 단위의 아카이브가 되고 이들이 공동체 아카이브를 수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의 ‘미션 공동체 아카이브(Mission Community Archives)’, ‘나내모 공동체 아카이브(Nanaimo Community Archives)’²²⁾, 그리고 마니토바 주의 ‘칼베리 플레인스 아카이

브(Carberry Plains Archives)²³⁾와 ‘노스 노퍽-맥그레고르 아카이브(North Norfolk-MacGregor Archives Inc)’ 등은 이른바 공동체 아카이브로 분류되지만 그 관리 및 통제 주체가 지방 행정기관으로서 주류 아카이브의 특성을 그대로 지닌다.

미국은 공동체 아카이브의 공공 아카이브와의 통합성이란 측면에서 보면 캐나다 보다는 이완된 형태이나, 역사협회, 도서관, 대학 등 주정부 등 지역 주요 문화기관이 공동체 아카이브 구축의 추진 주체가 되어 왔다는 점에서 여전히 기관 중심형으로 보인다. 일례로 미국 전역에 걸쳐 설립되어 있는 주나 시 단위의 공공 도서관의 경우, 그 지역의 민간 영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공동체 기록물들을 통합해 수집해 왔다. 예를 들면, 휴스턴시 공공도서관의 부설기관인 휴스턴 메트로폴리탄 연구센터(Houston Metropolitan Research Center)는 도서관의 스페셜 컬렉션(special collection)으로 1978년부터 휴스턴 역사와 관련된 멕시코계 미국인 공동체에 대한 컬렉션을 수집해 왔다. 텍사스주 오스틴시 공공도서관의 경우, 부설기관인 오스틴 역사센터(Austin History Center)에서 베트남계 미국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히스패닉계 미국인, 필리핀계 미국인 등 지역의 다양한 인종 공동체에 관한 컬렉션을 수집해 오고 있다. 한편 대학의 경우도, 텍사스 대학의 멕시코계 미국인 연구센터(Center for Mexican American Studies)와 캘리포니아 대학의 치카노 연구 리서치 센터(the Chicano Studies Research Center)는 멕시코계 미국인에 관한 컬렉션을 구축하여 미국에서 히스패닉 인종공동체 아카이브를 대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인종공동체 아카이브를 살펴보자. 1971년에 설립되어 클리브랜드 지역의 인종 공동체 아카이브를 수집하기 시작한 웨스턴 리저브 역사협회(Western Reserve Historical Society),

22) Nanaimo Archives, [cited 2013. 8. 16], <<http://www.nanaimoarchives.ca>>.

23) Archives-North Norfolk, [cited 2013. 8. 16], <<http://www.mts.net/~archives/history.htm>>.

오하이오 역사협회(Ohio Historical Society), 위스콘신 주역사협회(State Historical Society of Wisconsin), 그리고 미네소타 역사협회(Minnesota Historical Society) 등이 미국에서 인종공동체에 관련된 컬렉션을 보유한 대표적인 공동체 아카이브들이다.²⁴⁾ 이들 사례들은 공동체 자율 주체에 의한 당사자주의 보다는 주로 주나 시 단위 재정 지원을 받는 전문가 지식 집단이나 공적 수집 기관들에 의해 관리, 통합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주류 혹은 중앙 기관의 영향력이 강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미국 공동체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 주류 문화기관의 지배적 역할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다큐멘테이션 전략에서도 변하지 않는다.²⁵⁾ 다큐멘테이션 전략의 초창기 파일럿 프로젝트로 진행된 뉴욕 서부의 기록화를 보자. 이 경우에 민간 기록을 수집하고 있는 다수의 지역기반 주류 문화기관들이 추진 주체로서 참여하였고, 밀워키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지역내 기록관들이 주체가 되어 기록관들의 협력적 수집을 전제로 진행되었다. 다큐멘테이션 전략이 제시하는 복수 기관의 협업에 기반한 방법론은 최근까지도 미국의 공동체 아카이브 구축의 주요 기제로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공동체 아카이브인 캘리스피어(Calisphere)를 들 수 있다. 캘리스피어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디지털 도서관이 캘리포니아 대학의 도서관과 박물관 등 110여개의 다양한 문화기관과 협업하여 구축한 캘리포니아 지역의 공동체 아카이브로, 캘리스피어의 콘텐츠는 캘리포니아 대학의 도서관, 박물관 및 캘리포니아 전역에

24) Robert M. Warner · Francis X. Blouin, "Documenting the Great Migration and a Century of Ethnicity in America", *American Archivist* Vol. 39, No. 3, July 1976, pp.323-324.

25) '다큐멘테이션 전략'은 개별 산재된 공동체 아카이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주류 문화기관들이 협업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체 관련 소장 기록물을 통합해 공동체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존의 이양이나 양도의 형태로 공동체로부터 민간 기록물을 넘겨받아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는 공공 아카이브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기관들이 주체가 되어 공동체 아카이브의 구축을 추진하는 전략이다.

걸쳐있는 다양한 문화기관으로부터 평가 선별된 것이다.²⁶⁾

2) 수집기관 중심의 정리 및 기술

북미에서 공동체 아카이브는 이렇듯 미국에서는 주류 문화기관들에 의해, 캐나다에서는 국가 주도형 토탈 아카이브에 의해 구축되어왔다. 이는 두 국가에서 수집기관의 수집정책(collection development policy)을 중심에 둔 공동체 아카이브의 평가 및 정리와 기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개 기록의 수집과 관리는 이를 수행하는 기관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기록을 통해 수집기관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을 지닌다.²⁷⁾ 정부 기관이나 제도권내의 주류 아카이브는 이러한 목적을 초월하여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수집하는 민간의 기록 역시 공동체의 입장을 대변하기 보다는 수집기관의 수집정책과 보존방식에 따라 민간기록을 수집하고 기관이 채택한 관리방식에 따라 관리된다. 즉 공적 기관의 사명과 임무, 그리고 스스로 천명한 수집정책이 생산자 주체의 정체성과 상이한 방식으로 생산된 자율적 기록과 기억에 우선한다.

북미의 주류 문화기관들은 대체로 그 지역의 역사를 다큐멘테이션한다는 수집정책 아래 공동체 아카이브를 그 일부로서 수집해 왔다. 미국에서 대표적인 라티노 공동체의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는 미시간 대학의 벤틀리 역사도서관의 경우, 미시간 지역의 역사 및 지역주민과 조직들의 활동을 기록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벤틀리 역사도서관은 이 같은 사명 아래 라티노 공동체 아카이브를 미시간 주의 다큐멘테이션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수집해 왔다. 이외에도 앞서 언급한 웨스턴리

26) <<http://www.calisphere.universityofcalifornia.edu/about-cs.html>>, [cited 2013. 9. 10].

27) 윤은하,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기록학연구』 제33호, 2012, 213쪽.

저브 역사협회 등 인종공동체 아카이브를 수집한 역사협회를 비롯해서 텍사스 휴스턴시 공공도서관의 휴스턴 메트로폴리탄 연구센터, 텍사스 오스틴 공공도서관의 오스틴 역사센터 등도 그 지역의 역사를 다큐멘테이션한다는 기관의 사명 및 수집 정책아래 인종공동체 아카이브를 수집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캘리스피어 역시 캘리포니아 지역의 역사와 문화의 기록화 일환으로 캘리포니아 지역의 공동체 아카이브를 구축한 사례이다.²⁸⁾

미국에서 수집기관 중심의 극단적인 아카이빙 사례는, 정부 정책의 평가에 대한 민간 기록 수집이 정책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한에서 수집된다는 사실을 밝힌 하인딩(Hinding)의 논문에서도 잘 읽을 수 있다. 하인딩은 관련된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방책으로써 수집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잠정적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한에서 그들 기록이 수집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²⁹⁾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인과 미국 알래스카 원주민의 아카이브 수집 사례 역시도 수집 주체의 공공 기관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원주민 공동체 아카이브의 정리, 선별 및 기술이 '주류 기억화'되는 사례를 잘 보여준다.³⁰⁾ 수집기관의 수집 정책에 따른 공동체 아카이브의 평가 및 정리와 기술에 있어서의 이

28) 주류 문화기관 중심의 통합적 다큐멘테이션의 일환으로서가 아니라, 인종공동체에 관련된 기록물 수집에 특화된 공동체 아카이브들도 미국에서 존재해 왔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예를 들면, 1947년에 설립된 신시내티에 있는 히브리 유니온 대학의 유대인 종교 기관(Hebrew Union College-Jewish Institute of Religion)이 설립한 유대인계 미국인 공동체 아카이브(American Jewish Archives)와 1982년에 설립된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일본계 미국인 국립박물관(Japanese American National Museum)의 일본계 미국인에 대한 공동체 아카이브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공동체 스스로를 대변하는 특정 콜렉션을 다큐멘테이션 전략의 중심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주류 문화기관들의 수집 태도와 방식과 차이를 보인다.

29) 윤은하, 앞의 글, 13-14쪽.

30) Jeannette A. Bastian, *Owning Memory: How a Caribbean Community Lost Its Archives and Found Its History*, Libraries Unlimited: Westpor, 2003; Matthew Kurtz, "A Postcolonial Archives? On the Paradox of Practice", *Archivaria* Vol. 61, 2006, pp.63-90.

러한 편향은, 이후 다큐멘테이션 전략의 등장으로 복수기관의 협업 과정에서 문제를 발생시켰다. 즉 제각각 수집기관들 중심으로 구성된 공동체 아카이브 수집 정책은 기초가 달라지면서 이들간 하나의 공통 분모를 찾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어려워져 다큐멘테이션 전략의 실패를 낳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수집 주체가 공공 아카이브이다. 중앙과 지역에 세워진 공공 아카이브들이 공동체 아카이브의 대부분을 통제 관리해왔기 때문에 이의 정리 및 기술이 공공 기록의 정리 및 기술 방식을 대부분 따르고 있다. 캐나다 13개 주의 지역 네트워크들은 공공 기록과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기술이나 정리에 있어 컬렉션이나 품 수준에서의 집합적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각 네트워크는 캐나다 아카이브 위원회의 기술에 관한 지침을 기본으로 해서,³¹⁾ 공공 기록 중심의 통일된 정리 및 기술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컬렉션이나 품의 제목, 참여하는 보존소, 소장 기록물의 제목과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결국 캐나다는 이처럼 중앙과 지역 행정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아카이브에서 공동체 아카이브를 관리한 오랜 전통으로 인해, 그것의 구조와 콘텐츠 구성에 있어서 공공 아카이브의 체계를 따르고 있다.

3) 평가주체로서 아키비스트의 역할 강조

북미지역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공동체 기록은 전문 아키비스트의 몇 가지 '가치' 기준에 따른 평가과정을 거친다.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평가의 책임을 전적으로 기록 생산자인 공동체 주체에 할당하는 힐러리 켄킨슨(Hilary Jenkinson)의 주장에 기댄 영국형 독립 공동체 아카이브의 접근과 확실히 다르다. 즉 미국과 캐나다에서 공동체 아카이브

31) Canadian Council of Archives, *Rules for Archival Description*, [cited 2013. 7. 10], http://www.cdncouncilarchives.ca/RAD/RADComplete_July2008.pdf.

는 전문 아키비스트가 기록을 평가해야 한다는 쉘렌버그의 평가론을 따르고 있다.

쉘렌버그의 기록평가에 있어서 아키비스트의 역할 강조는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 가치의 평가주체로서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상징하는 제럴드 햄에 의해 더욱더 강화된다. 햄은 한 발 더 나아가 쉘렌버그의 평가론에서 아키비스트의 역할이란 그저 역사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 머물러 있어 이 가운데 아키비스트는 기껏해야 역사학의 변화에 의해 좌우되는 풍행계나 마찬가지로 비판했다. 궁극적으로 햄은 다큐멘테이션 전략을 통해 아키비스트의 소극적인 역할을 온전히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미지역에서 공동체 아카이브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큐멘테이션 전략에서 아키비스트의 역할은 ‘과거의 보관자(keeper)’에서 ‘과거의 형성자(shoper)’로서, 즉 보다 능동적인 사회적 가치의 평가 주체로 전환하게 된다. 다큐멘테이션 전략은 이렇듯 아키비스트의 기억에 대한 능동적, 형성적 역할을 강조하며, 아키비스트 스스로 행정사를 넘어 지역사를 포괄적으로 기록화하는 주체가 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비록 다큐멘테이션 전략이 풀뿌리 아웃리치 전략의 일환으로 공동체 구성원을 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거버넌스’적 측면도 읽을 수 있으나, 수집 및 평가주체로서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려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엘리자벳 존슨(Elizabeth Snowden Johnson)도 마찬가지로 다큐멘테이션 전략을 아키비스트가 능동적 활동가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추구하는 시도로 보았다.³²⁾ 최근 북미의 공동체 아카이브 구축에 있어 이상적인 아키비스트 모델로 언급되는 ‘실천적 아키비스트(activist archivist)’의 개념 역시 공동체 아카이브

32) Elizabeth Snowden Johnson, "Our Archives, Our Selves: Documentation Strategy and the Re-appraisal of Professional Identity", *American Archivist* Vol. 71, Spring/Summer, 2008, pp.190-202.

의 수집 및 평가 주체로서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변함없이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의 다큐멘테이션 전략인 토탈 아카이브의 전통에서 보더라도, 아키비스트의 평가에 있어서 그들의 역할은 중요하다. 캐나다 사회에서 아키비스트란 법에 의해 사회의 집단 기억을 형성하도록 임명된 사회의 전문적 인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키비스트는 자신들의 평가 도구를 통해 능동적으로 당대의 다큐멘터리 유산을 형성하는 합법적인 주체이다. 비록 그 누구도 직접적으로 당대의 사회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확신할 수는 없지만, 캐나다 사회는 아키비스트를 평가 전략과 방법론, 그리고 적절한 프로세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공인된 책임자로 간주하고 있다. 공공기록의 거시평가론에서 기능 평가의 주체로서 아키비스트들의 중심적 역할이 확고하듯, 이들이 공동체 아카이브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역할 또한 널리 공인 받고 있는 것이다.

북미지역 공동체 아카이브의 수집 및 평가에 있어서 아키비스트의 역할에 대한 강조는, 결국 웰렌버그의 기록가치론에 내포되어 있는 기록의 정보적 가치에 대한 강조로 이어진다. 웰렌버그의 기록가치론은 젠킨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자의 '정보 가치(informational value)'와 잠재적 이용을 강조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것은 영국에서 공동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아카이브 평가의 주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과 달리, 북미의 아키비스트는 학술 연구자 등 이용자들에 의한 잠재적 사용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후자의 경우인 북미의 아키비스트 전통에서는 참고(reference)와 연구 목적(research purpose)을 평가에 있어 주요 기준으로 간주하는 웰렌버그의 기록가치론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공동체 아카이브의 수집 및 평가에 있어서 현재 혹은 예견된 연구 동향과 공동체 기록이 가지는 정보 가치에 따라 기록을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³³⁾

종합해보면,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세 가지 주요 특징들, 추진 주체로서 주류 문화기관, 수집기관 중심의 아카이브 정리 및 기술, 그리고, 평가 주체로서 아키비스트의 역할론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 우리는 북미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관 주도형 하향식 모델을 지배적 아카이브 시스템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동체 아카이브의 투명한 접근을 확보하기 위한 ‘다큐멘테이션’ 전략의 공동체 아웃리치 등 거버넌스적 기제들과 독립적 콜렉션으로 유지되는 소규모 공동체 아카이브를 제외하면, 사실상 북미 지역은 주류 아카이브가 공동체 아카이브의 집단 기억 수집 및 관리의 전문 대리자로 등장하면서, 공동체 자신의 기억을 타자화하여 수집과 평가를 수행해왔다고 추론할 수 있겠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발화할 수 없는’ 공동체의 잊혀진 기억을 아카이빙하려는 북미 국가들의 시도들, 특히 거버넌스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려 한다.

4. 북미지역 공동체 아카이브 거버넌스 논의

1) 공적 기록에 대한 초기 거버넌스 논의 : ‘거시평가론’

북미 기록학계에서 초창기 거버넌스 논의는 주로 공적 기록을 그 대상으로 하고 기록관리의 프로세스 중 평가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전개되

33) Theodore R. Schellenberg, *Modern Archives*,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1956, p.16. 이러한 경향은 이스토 후빌라(Isto Huvila)가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철저한 이용자 지향”(radical user orientation)의 참여 아카이브 논의와 무관하지 않다. Isto Huvila, “Participatory Archive: Towards Decentralized Curation, Radical User Orientation, and Broader Contextualisation of Records Management”, *Archival Science* Vol. 8, 2008, pp.15-36.

었다. 사실상 평가는 북미 기록학계에서 가장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영역으로, 다큐멘테이션 전략 역시 이 영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북미의 대표적인 기록학자인 헬렌 사무엘스와 리차드 콕스(Richard Cox)는 평가를 아키비스트의 ‘첫 번째 임무(first responsibility)’로 간주하고 그 외 아카이브 절차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핵심 과정으로 정의하였다.³⁴⁾ 또한 최근에 랜달 짐머슨(Randall C. Jimerson)은 철학자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를 인용하면서 기억될 것과 잊혀질 것을 결정하는 아키비스트의 평가 행위를 아카이브에 대한 권력 행위로까지 중대하게 묘사하고 있다.³⁵⁾ 평가에 대한 북미 기록학계 내부의 강조는, 평가를 주로 아카이브 밖의 기록생산자의 영역이 아닌 아카이브 내부에 거하는 아키비스트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북미에서 평가는 아카이브의 핵심 근간이자 끝없이 기록을 재형성하고 재이해하는 활동으로 이해되어 왔다.³⁶⁾

북미에서 기록학의 핵심 영역으로 간주되는 평가에 대해, 테리 쿡(Terry Cook)은 그 이론적 발전국면을 4단계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첫째, 평가를 기록생산자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큐레이터적 보관자(curatorial guardian) 단계, 둘째, 역사학의 경향을 반영하여 수동적으로 평가결정을 내리는 역사가-아키비스트 단계, 셋째, 기능과 행위의 맥락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전문 아키비스트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넷째, 다양한 시민 공동체가 평가에 참여하는 참여평가 단계로 정의하고 있다.³⁷⁾

34) Richard J. Cox · Helen W. Samuels, “The Archivist’s First Responsibility: A Research Agenda to Improve the Identification and Retention of Records of Enduring Value”, *American Archivist* Vol. 51, Winter-Spring, 1988, pp.28-42.

35) Randall C. Jimerson, *Archives Power: Memory, Accountability, and social Justice*,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009.

36) Terry Cook, “Macro-appraisal and Functional Analysis: Documenting Governance rather than Government”,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Vol. 25, No. 1, 2004, p.7.

37) Terry Cook, “We are What We Keep: We Keep What We Keep’: Archival Appraisal

이러한 평가론의 전반적인 진화 속에서 근래에 민주적 통치 형태의 하나로서 정의되는 ‘거버넌스’의 개념이 평가론과 본격적으로 접목된 것은 세 번째 단계, 즉 전문 아키비스트 단계와 관련해서다.

아키비스트가 주체적으로 기록을 평가하는 전문 아키비스트의 단계에서, 평가 영역을 거버넌스의 개념과 접목시킨 대표적 인물이 테리 쿡이다. 그는 캐나다 국가기록청(Library and Archives Canada)에 근무할 당시 캐나다 공공 기록의 약 1-5%만을 역사적으로 보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을 전제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적 기록에 대한 평가의 주요한 잣대를 정부 영역과 시민 영역의 협치를 표방하는 거버넌스에서 찾았다. 캐나다 국가기록원장이던 이안 윌슨(Ian Wilson)의 말을 인용하면서, 쿡은 민주 사회에서 공공 기록은 단순히 정부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의 개념에 평가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³⁸⁾ 즉 공적 기록의 평가에 있어 사회 전반의 포괄적인 기록화를 강조하면서 이것은 정부의 기능과 시민의 상호작용의 기록, 즉 민관 협치의 ‘거버넌스의 기록’을 평가·선별함으로써 실현 가능하다고 보았다. 쿡의 정부기능 분석을 중심으로 한 ‘거시평가론(Macro-appraisal)’은 민주사회에서 거버넌스 기록의 획득을 위한 평가론으로 제안되었다.

한스 부스(Hans Booms)의 견해에 영향을 받으면서, 쿡의 거시평가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가치(societal values)가 기록 평가의 기초이어야 한다고 봤다. 쿡의 사회적 가치는 정부의 기능성(functionality)과 시민간 상호작용, 즉 정부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개의 (기능적) 프로그램을 시민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대하고, 항의하고, 변화시키고,

Past, Present and Future”,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Vol. 32, No. 2, 2011, p.173.

38) I. E. Wilson, “Reflections on Archival Strategies”, *American Archivist*, Vol. 58, Fall 1995, pp.414-428; Terry Cook, “Macro-appraisal and Functional Analysis: Documenting Governance rather than Government”, p.8.

수정하도록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록함으로서 가능하다고 보았다.³⁹⁾ 거시평가의 요소에는, 첫째, 기록 생산자 (즉 구조, 기관, 사람), 둘째, 사회적·역사적 과정 (즉 기능, 프로그램, 행위, 기록 생산자가 시민을 위해서 하는 처리), 셋째, 기능과 구조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이에 영향을 받는 시민, 의뢰인, 고객으로 나뉜다. 쿡은 이 세 가지 상호 연관된 실체가 만나는 접점과 갈등의 특성을 아키비스트가 분석, 기록함으로써 자신들의 평가 업무에 있어 사회 전반의 포괄적 가치를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⁴⁰⁾ 달리 표현하면, 쿡의 거시평가는 국가와 시민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능 분석을 통해 시민(民)과 국가(官) 간의 협치를 강조하는 거버넌스 개념에 접근한다.

결국 공적 기록에서 거버넌스의 기록은 거시평가를 통해 국가의 정책이나 과정뿐만 아니라 시민과 국가 간의 소통과 상호작용의 기록을 선별하고 사회에 대한 국가의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능이나 행위 그 자체를 기록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 긍정적 의미를 지닌다. 이를 위해 거시평가는 의식적으로 민주사회에서 정부와 시민의 기능을 대변하는 다양한 개별 프로그램들을 기록함과 동시에 양자 간의 상호작용의 접점 및 수준을 기록하고자 했다. 물론 그의 거버넌스 개념에도 한계는 있다. 정부의 ‘기능성’으로 판단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시민 사회와의 접점을 기록한다는 것은 후자의 영역을 일면적이고 단면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2) 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 논의 본격화 : ‘참여 아카이브’

공적 기록의 기능 분석에 기댄 거시평가 중심의 초창기 거버넌스 논의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공동체 아카이브를 포함한 민간 기록에 대

39) Terry Cook, Ibid.

40) Ibid.

한 거버넌스 구축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정부 기능과 시민이 맞부딪치는 지점에 대한 기록과 평가 방식으로는, 공동체에 대한 기억을 보존하고 이를 풍부하게 재현하기에 역부족이다. 무엇보다 공동체 내부의 조직 및 개인의 기능이나 활동 중심의 평가 외에 공동체의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 행사, 인물, 유물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가치 평가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⁴¹⁾ 거시평가론을 주장했던 쿡 역시 민간영역 기록물에 대한 평가 결정은 통합된 토털 아카이브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공적 기록이나 기관 기록의 거시평가를 보완해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⁴²⁾ 즉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해서는 공동체의 가치와 특성을 반영한 기록화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북미의 공동체 아카이브들은 다큐멘테이션 전략의 일환으로 주류 문화기관이 주체가 되어 공동체 관련 기록을 대부분 수집해 왔다는 점을 이 글에서 확인했다. 이와 같은 관중심의 공동체 아카이브 수집 정책이 지닌 문제를 극복하는 동시에 기능 중심의 거시평가가 가지는 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모델로, 최근 ‘참여 아카이브(participatory archives)’ 모델이 부상하고 있다.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기관과 공동체가 기록관리의 모든 프로세스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전제하는 참여 아카이브는, 공동체 아카이브에 있어서 민·관 협치, 즉 거버넌스를 위한 주요 기제로 주목 받고 있다.

북미에서 공동체가 아카이브 컬렉션의 대상화된 주제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 승격하는 최근 참여 아카이브 모델의 등장에는 다음의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 사회적 소수자 권리와 문화적 다양성에 반응하는 새로운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 둘째, 주류 역사로부터 소외되었던 사회문화사의 조명과 이에 대한 대중 관심의 증대,

41) 설문원, 앞의 글, 108쪽.

42) Terry Cook, "Macro-appraisal and Funcional Analysis", p.181.

셋째, 아카이브 이론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직·간접적 영향, 넷째,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기인한 소수자들 자신의 표현과 아카이빙 기회의 촉진 등을 꼽을 수 있다.⁴³⁾ 이러한 구조적 변화의 맥락 속에서 등장한 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 모델은, 사실상 참여 아카이브 모델⁴⁴⁾로 명명되기 전부터 기록공동체를 포함한 학계 내부에서 간헐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미 1978년, 역사가 윌리엄 헤이간(William Hagan)은 미국 원주민을 ‘아카이브 포로(archival captive)’로 표현했다. 그는 이를 통해 소수 인종공동체를 아카이브의 생산 주체가 아니라 타자화하고 대상화하는 관례를 정확히 비판했다.⁴⁵⁾ 그는 원주민들이 ‘아카이브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류 아카이브와 원주민 공동체의 ‘협력’을 강조했다. 헤이간이 보았던 기관과 공동체 간 협력관계는 기록 생산자와 공동체 활동가를 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미국의 다큐멘테이션 전략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이후 기록학계에서 출처(provenance)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조엘 윌(Joel Wurl)은 ‘출처로서 인종(ethnicity as provenance)’을 바라보게 된다. 즉 그는 출처로서가 아닌 수집 대상으로 간주되었던 인종공동체에 대한 시각 교정을 촉구했다.⁴⁶⁾

윌은 공동체 아카이브의 평가와 정리에 있어서 출처주의를 강조함과 동시에 출처로서 이주민들과 인종 소수자들이 수집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공동체 기록 생산물을 대상화해 형식적 관리자 역할만을 떠안았던 아키비스트의 수동적 정서, 즉 ‘보관자

43) Dominique Daniel, “Documenting the Immigrant and Ethnic Experience in American Archives”, *American Archivist* Vol. 73, Spring/Summer, 2010, p.82.

44) Katie Shilton·Ramesh Srinivasan, “Participatory Appraisal and Arrangement for Multicultural Archival Collections”, *Archivaria* Vol. 63, Spring, 2007, p.98.

45) William T. Hagan, “Archival Captive: The American Indian”, *American Archivist* Vol. 41, No. 2, 1978, pp.135-42.

46) Joel Wurl, “Ethnicity as Provenance: In Search of Value and Principles for Documenting the Immigrant Experience”, *Archival Issues* Vol. 29, No. 1 2005, pp.65-73.

의 에토스(ethos of custodianship)'를 버릴 것을 주문한다. 외려 아키비스트가 공동체와 끊임없이 상호 유기적 관계를 맺을 것을 강조하는, '스튜어드십의 에토스(ethos of stewardship)'로 대체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안 존스톤(Ian Johnston)과 같은 아키비스트는 소외된 내러티브의 수집과 평가에 있어서, 아키비스트들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단지 그들이 공동체를 대리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 참여를 전제로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⁴⁷⁾

공동체 아카이브의 타자화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공동체 구성원의 협력과 참여에 대한 초기의 논의들은, 최근에 쉴튼(Katie Shilton)과 스리니바산(Ramesh Srinivasan)이 제안한 참여 아카이브 모델을 통해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진다. 쉴튼과 스리니바산은 전통적인 아카이브 프로세스인 평가, 정리, 그리고 기술 과정을 가로질러 공동체와 아키비스트의 지속적인 협력을 전제로 한 상호 유기적 정서, 즉 '스튜어드십의 에토스'를 적극 구현하고자 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참여 아카이빙을 통해서 타자화되고 소외된 공동체를 복권해 그들 스스로 말하는 기록, 즉 자율적 내러티브와 두터운 기술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쉴튼과 스리니바산에 의해서 제안된 '참여평가'는, 기록의 직접 생산자인 공동체가 아카이브의 평가 프로세스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의 문화적 가치를 합의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는 실제 기록의 평가에 공동체 대표를 참여시켜 "문화적으로 다른 이해"에 근거한 평가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⁴⁸⁾ 공동체 내부 대표의 참여는, 기록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문화적으로 다른 중심 주체를 복권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더불어 이는 아카이브 가치를 문화적으로 다른 공동체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것이기도 하다. 공동체 기록물에 대한 평가를 기록 생산에 책

47) Ian Johnston, "Whose History is It Anyway?"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 Vol. 22, No. 2, October, 2001, p.27; Katie Shilton · Ramesh Srinivasan, *Ibid.*, p.92.

48) Katie Shilton · Ramesh Srinivasan, "Participatory Appraisal and Arrangement for Multicultural Archival collections", p.93.

임 있는 공동체 구성원의 개입을 통해 접근함으로써, 아키비스트는 시설 공동체 기록의 가치를 공동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참여 정리 및 기술’ 또한 공동체 구성원을 평가에 이어 아카이브의 정리와 기술의 프로세스에 참석시키면서 역사적으로 소외된 공동체의 자기기록화 과정의 맥락과 그 속에 묻히고 잊혀진 지식-구조를 이해하고 반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각각의 기록들이 다른 내러티브와 가지는 구조적 연계성을 복원하여 정리하고 기술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의 습관, 관습, 경향 또는 믿음을 구체적으로 아카이빙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쉴튼과 스리니바산의 ‘참여아카이브’의 구체적 각론들에 근거해 볼 때, 오늘날 참여평가, 정리 및 기술 방식은 북미의 대표적인 다문화 아카이브를 포함해 공동체 아카이브의 민주적 참여모델을 구성하기 위한 중요한 실험으로 고려해볼직 하다.

3) 참여 아카이브의 개념적 프레임워크 : 공동체 아웃리치 전략

공동체 아카이브의 민·관 거버넌스 모델로 제안되고 있는 참여 아카이브는, 전통적인 기록관리의 방법론 및 도구를 활용 및 확장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아웃리치 전략을 개념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공동체 아웃리치 전략은 결국 쉴튼과 스리니바산이 강조했던 기록관리에 있어서 레코드 컨티니움(record continuum) 모델과 아키비스트의 ‘스튜어드십의 에토스’을 그 주요 근거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공동체 아카이빙 평가, 정리와 기술에서 지속적으로 아키비스트(주류 아키비스트)와 공동체 구성원(공동체) 서로가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논의로부터 참여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공동체 아웃리치 전략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출처주의와 원질서 원칙을 따라야 한다. 기록관리에 있어 기

록의 생산자와 생산 맥락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출처주의와 원질서 원칙에 기반한 아카이브의 정리와 기술의 방법론은 아카이빙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 원칙들 아래에서는 제3자보다 기록 생산자를 우위에 두기 때문에 기록 생산자인 공동체와 공동체의 지식구조를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이 용이해진다. 기록 생산자와 그를 둘러싼 생산 맥락에 대한 근본적 강조점은 공동체 아카이브의 ‘자율 보존(empowered preservation)’을 위한 유용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로 활용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록 생산자의 습관과 관습에 충실한 출처주의와 원질서의 적용은 공동체 아카이브의 맥락을 보존하고 공동체 내러티브에 기초한 아카이브 구축의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결국 출처주의와 원질서 원칙은 그동안 소홀했던 근본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고, 그와 함께 역사적으로 소외된 공동체가 스스로 말하도록 하고 공동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콘텍스트 가치를 보존하자는 것이다.

둘째, ‘문화적’ 출처주의의 적극적 수용이 필요하다. 참여 아카이브 모델에서 공동체 아카이브의 자율 보존을 위한 개념적 프레임워크로서 출처주의에 대한 강조는, 엄밀히 보면 전통적인 기록관리에 있어서 기록의 직접적 생산자를 혹은 기능을 강조하는 출처주의라기 보다는 이러한 출처주의를 포괄하여 확장된 개념으로서 문화적 출처를 의미한다. 즉 출처는 “문화적으로 구성된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⁴⁹⁾ 각 문화적 공동체에서는 출처에 대해서 그들 내부의 각기 다른 문화적 이해에 근거하여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는 경향을 띤다. 그래서, 출처의 결정에는 공동체의 문화적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문화적 출처주의는 다양한 문화적 기반을 가지는 인종공동체 아카이브의 출처 결정에 있어서 특히 유용한 개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샌디에고 카운티의 원주민, 쿠메야아이족, 루이제노

49) Dominique Daniel, “Documenting the Immigrant and Ethnic Experience in American Archives”, p.97.

족, 그리고 쿠파노족, 차우칠라족 등 다양한 종족 공동체 구성원들은 ‘종족평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허브(Tribal PEACE online communication hub)’의 구조를 짜기 위해 출처를 결정할 때, 기록 생산자들의 복잡한 종족 간 네트워크에 근거하여 이를 결정했다.⁵⁰⁾

출처가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는 문화적 출처의 개념은, 맥케미쉬(Sue McKemmish) 등이 언급한 호주의 사례에서 더욱 강조된다. 맥케미쉬 등은 호주와 같은 후기식민주의 사회에서 이전 식민통치권자가 만든 출처에 이로부터 해방된 피지배 민중들이 결정한 출처를 더하여 생산한 이중의 ‘평행 출처(parallel provenance)’에 근거해 만들어진 평행 기록관리시스템의 사례를 소개했다.⁵¹⁾ 마찬가지로 헬렌 베란(Helen Verran) 등은 호주의 율누(Yolngu) 공동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공동체 내러티브의 중심이 기록 생산자가 아니라 오히려 기록 생산자의 기능적 출처임을 증명해 보임으로써, 공동체 아카이브에 있어 문화적 출처주의가 가지는 유용성을 재확인하였다.⁵²⁾

셋째,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질서부여(ordering)이다. 공동체 기록들이 공동체의 문화적 온톨로지 범위 내에서 정리, 기술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질서부여(participatory ordering)가 중요한 프로세스라고 규정할 수 있다.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결정된 공동체 기록의 질서부여와 그에 따른 기술은, 기록간의 구조화된 관계인 공동체 내러티브의 관계성을 회복하는데 주요한 매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스톤 지역의 디지털 공동체 아카이브 ‘빌리지보이스

50) Katie Shilton and Ramesh Srinivasan, “Participatory Appraisal and Arrangement for Multicultural Archival collections”, pp.96-97.

51) Sue McKemmish, Anne Gilliland-Swetland · Eric Ketelaar, “Communities of Memory: Pluralising Archival Research and Education”, *Archives and Manuscripts* Vol. 33, 2005, p.152.

52) Helen Verran et al., “Designing Digital Knowledge Management Tools with Aboriginal Australians”, *Digital Creativity* Vol. 18, issue 3, 2007, pp.129-142.

온라인광장(Village Voice online agora)'의 경우를 보자. 이곳에 거주하는 소말리족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신이 선택한 온톨로지와 이들의 내러티브를 연관시키고 개별 기록도 그들간의 지적 연관성을 구축하는 등 질서부여를 통해 아카이브의 재현에 그들 공동체의 맥락을 더했다.⁵³⁾

마지막으로, 공동체 온톨로지의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 참여 아카이브의 이상적 모델은, 우선 공동체 구성원의 직접적 참여를 통해 공동체 아카이브의 직접 생산자와 기능 및 문화적 출처를 결정하고, 다음으로 질서부여와 그것으로부터 내러티브간의 관계성을 회복한 뒤에, 최종적으로 공동체 고유의 온톨로지와 지식체계의 구축 및 확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즉 공동체 아카이브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선 기록관리에서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출처와 원질서주의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지식 구조와 문화적 온톨로지에 따라 정리하고 기술하는 쪽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데 있다. 공동체 지식체계와 어울리는 방법으로 공동체 아카이브를 정리하고 구조화하고 제목과 주제명을 정하는 행위 등은, 소외된 공동체 목소리가 왜곡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공동체 기록이 더 완벽하게 광범위한 대중에 의해 제대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한다.

5. 북미지역 공동체 아카이브 거버넌스 논의의 한국적 함의

북미에서 민주 사회의 기록관리를 위한 이론적 개념으로 등장한 민·관의 협치, 즉 거버넌스 개념은 등장 초기에는 공적 기록을 대상으

53) Ramesh Srinivasan · Jeffrey Huang, "Fluid Ontologies for Digital Museums", *International Journal on Digital Libraries* Vol. 5, issue 3, 2005, pp.193-204.

로 하였다. 주로 평가 프로세스를 그 범주로 하여 국가와 시민이 만나
는 접점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록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초
기의 거버넌스 논의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 민간 영역의 공동체 아카이
브에 대한 거버넌스 논의로 확장되어 나갔다. 주류 문화기관이 공동체
아카이브의 추진체이자 그 정리 및 기술에 있어서도 수집기관이 되는
북미의 하향식 공동체 아카이브 모델은, 그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 공동체와의 협력과 협업, 즉 거버넌스에 기반한 새로운 보완책을 모
색한다. 자연스레 북미 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 모델로 ‘참여 아카
이브’ 모델이 부상했고, 이의 핵심은 공동체가 아카이빙 프로세스에 직
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기존의 하향식 공동체 아카이브 구축의 문제점,
특히 공동체의 타자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북미의 하향식 공동체 아카이브의 보완 모델로써 참여아카이브는, 국
내 공동체 아카이브의 전개와 관련해서 여러 실천적 함의를 던진다. 국
내에서도 공동체 아카이브로 분류될 수 있는 대부분은 북미와 마찬가지로
주류 문화기관이 주체가 되어 하향식으로 구축되어왔다. 물론 최
근 들어 성미산 마을공동체 등 공동체 풀뿌리 운동의 일환으로서 그들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하여 공동체 아카이브를 일구는
예외적 사례들도 보이지만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선 1990년대 중반 국가 중심의 기록학 패러다임에서 민간영역으
로 아카이빙 영역이 확산되어 나가고, 이러한 흐름에 민간의 일상생활
영역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서민의 삶이 지속되는 지역기반 공동체 아
카이빙에 대한 논의들이 성장했다. 그러나 민간영역의 공동체 아카이
브에 대한 수집의 주체는 대부분 이제까지 국가기록원을 비롯해 주류
문화기관들, 즉 도서관, 박물관, 지방문화원, 역사편찬기관, 공공 연구
소 등이었다.

주류 문화기관들에 의해 구축된 국내 공동체 아카이브는 이들 수집
기관 중심의 정리와 기술을 따라왔다. 국가기록원의 경우 기관의 활동

범위를 마을 단위로까지 확장한 「기록사랑 마을 수요조사」(2010)는 정리 및 기술에 있어 공공기록의 행정 중심적 사고를 반영하였고, 그 밖의 다양한 민간기록수집 사업은 일정한 정치적 편향성까지 드러냈다.⁵⁴⁾ 또한 대표적인 민간기록 수집의 사례인 ‘향토문화대전’의 경우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총괄 아래 진행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역사학의 주제 중심 구조로 짜여 있고, 기록중심의 콘텐츠가 있긴 하지만 중심이기 보다는 항목 집필의 부산물 정도로 생산되었다.⁵⁵⁾ 국내 공동체 아카이브의 이러한 특징, 즉 주류 문화기관이 주축이 되어 구축되어 왔다는 것과 주류 기관 중심의 정리와 기술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은, ‘참여 아카이브’를 모색하기 바로 이전 단계의 복미 공동체 아카이브의 하향식 모델의 성격과 대단히 흡사하다.

우리 기록학계 또한 하향식 공동체 아카이브 구축의 문제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예를 들면, 정리와 기술에 있어 국제표준 또는 공적 기록의 방법론을 그대로 따르고 그로 인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그것이다. 복미의 주류 문화기관이 새롭게 모색하고 있는 기관과 공동체의 협력에 기반한 참여 아카이브 모델은, 이 점에서 국내 주류 문화기관의 공동체 아카이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참여 아카이브 모델이 제안하는 주류 문화기관의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아웃리치 전략, 즉 출처주의와 원질서 원칙에 대한 강조, ‘문화적 출처주의’의 개념, 그리고 공동체 참여를 통한 질서부여와 이를 통한 공동체 내러티브의 관계성 회복,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동체 온톨로지의 구축은 국내 주류 문화기관이 앞으로 공동체 아카이브를 (공동체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54) 박건홍, 「일상 아카이브(Archives of everyday life)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론」, 『기록학연구』 제29호, 2011, 3-33쪽.

55) 설문원, 「로컬러티 기록콘텐츠 개발의 쟁점-무엇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로컬러티와 로컬러티의 기록화: 이론과 현장의 만남』, 부산대학교 SSK 로컬러티 기록화연구팀·명지대학교 인간과 기록화연구단 공동세미나 자료집, 2012, 5-29쪽.

‘공동체의 기록(of the community)’을 구축하는 데 효율적인 실천적 방법론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참여 아카이브 모델의 한계나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참여하는 공동체 구성원의 대표성에 대한 의문이다. 현실적으로 단일한 (또는 통일된) 이해관계에 기반한 인종적 또는 문화적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물의 평가와 정리에 참여할 공동체 구성원의 대표성을 정하기는 쉽지 않다. 당연히 그 기록 생산의 대표자를 선택하는 것은 명백하게 공동체내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구성원을 배제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⁵⁶⁾ 참여 아카이브 모델을 제안한 쉴톤과 스리니바산조차 공동체 내에서 참여 구성원에 대한 합의 결정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 언급하고 있다.⁵⁷⁾

공동체 아카이브의 구축에 있어서 거버넌스 개념이 가지는 태생적 한계도 곱씹어볼 만하다. 푸코주의적 통치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거버넌스’ 개념이란 본래 관주도의 통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된 민·관의 협치에 근간한 통치의 확장된 일 형태로 볼 수 있다. 이미 거버넌스란 통치 행위에 해당하며, 이 속에서 공동체와의 소통과 참여 아카이브는 기실 형식주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회의론에 도달한다. 다시 말해 공동체 아카이브의 거버넌스 모델로 제안한 참여 아카이브에서 공동체 아카이브는 공동체 아웃리치 전략 등 다양한 보완 기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류 문화기관의 필터를 통해 해석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대변할 수 없는 필연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논의를 근거없는 권력 회의론으로 치부하기 이전에, 한국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자생의 공동체와 이들의 아카이브 구축 노력에 있어서만은 협치나 거버넌스 모델과는 좀 더

56) Dominique Daniel, “Documenting the Immigrant and Ethnic Experience in American Archives”, pp.96-99.

57) Katie Shilton and Ramesh Srinivasan, “Participatory Appraisal and Arrangement for Multicultural Archival collections”, p.100.

다른 상향식 풀뿌리 접근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미지역의 참여 아카이브 모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풀뿌리 공동체의 자생적 흐름을 제외하곤, 역사적으로 따지고 보면 국내 공동체 아카이브들이 자생성을 상실한 채 여전히 주류 문화기관 일방의 편향된 관점에서 부실하고 약체인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적어도 참여 아카이브를 통한 북미의 거버넌스 모델은, 이미 역사적으로 제도화의 틀 속에 ‘길든(domesticated)’ 우리의 공동체 아카이브들을 보다 주체적인 방식으로 재활성화하고 갱신하는 데 훌륭한 지침을 우리에게 줄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

ABSTRACT

A Study of the Governance Discussion on Community Archives in North America

Lee, Kyong-Ra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 active discussion in North America about the issue of community archives governance which mainly focused on 'participatory archives' model and from it, draws implications for the present stage of domestic community archives development. Traditionally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local community archives have been built mostly by mainstream cultural institutions such as public archives, public libraries, museums, and historical societies as a part of comprehensive documentation of the society at large. At the same time, they have been processed and manag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itution's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As a result, most community archives in North America are characterized as top-down community archives model (in contrast with down-up model of 'independent' community archives as a part of grass roots movement in the UK). Recently, the community archives in North America with these characteristics try to overcome their limitations, which result in 'the others' of community archives, through governance, that is, community-institution partnership. Participatory archives model which assumes active community participation in all archives processes is being suggested by archival communities as the effective alternative of governance model of top-down community archives.

This discussion of community archives governance suggests progressive direction for the present stage of domestic community archives, which has been built mostly by various mainstream cultural institutions and still has been stayed in ‘about the community’ stage. Particularly, community outreach strategies that participatory archives model concretely suggests are useful as a conceptual framework in building community archives based on community-institution partnership in reality.

Key words : community, community archives, governance, community-institution partnership, participatory archives, community archives in North America, top-down community archives, documentation strategy, total archives, community ontology, cultural provenance, governance model of community archives, community outreach strategy